

2026. 7. 14.(화)
보도시점 간담회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7. 14.(화)

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돌봄 연계 사례 점검

-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전담팀 운영과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상황 살펴 -
-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해야 ”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7월 14일(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 전담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살폈다.

안성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시범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전문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현수엽 제1차관, 김보라 안성시장, 유관기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경과와 지역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강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수엽 차관은 “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부도 지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엽 차관은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찾아 센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방문간호 인력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퇴원환자 연계시스템 등 준비 과정을 집중 점검하였다.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로 의사, 간호사, 돌봄 담당자 등이 협력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돌봄의 핵심 기반시설로, 퇴원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의 방문 진료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인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용 어르신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복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경기도 안성시 통합돌봄 현장방문 개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요

담당 부서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044-202-3590)
		담당자	팀 장	박준형 (044-202-3591)
			사무관	김윤섭 (044-202-3596)



□ 개 요

- (목적)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핵심 거점인 지자체를 방문하여 전담인력 노고 격려 및 현장 추진 상황 점검
- (일시) '26. 7. 14.(화), 15:30~18:00 (2시간30분)
- (장소) **간담회** 안성시보건소 3층 회의실 → **현장방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
- (내용) ❶ 안성시 통합돌봄 현장간담회 ❷ 재택간호센터 방문 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 (참석) 복지부제1차관, 지방정부(경기도 안성시), 유관기관 (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재택의료센터3개소, 노인복지관 등), 전문가(서울대학교 및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진행순서 : 간담회 → 현장방문(재택간호센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가정)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❶	간담회	'90분	안성시 통합돌봄 추진현황 보고 및 토론
▶ 안성시보건소 → 재택간호센터(차량이동 5분)			
❷	재택 간호센터	'20분	재택간호센터 준비현장* 및 관계자 의견수렴 *재택간호센터 개소시기 미정
▶ 재택간호센터 → 재택의료 가정 (차량이동 10분)			
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가정	'25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진료 현장 참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농민의원

붙임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요

- ◆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
- (지원절차) ①신청→②조사·종합판정→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④통합지원 서비스 연계→⑤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